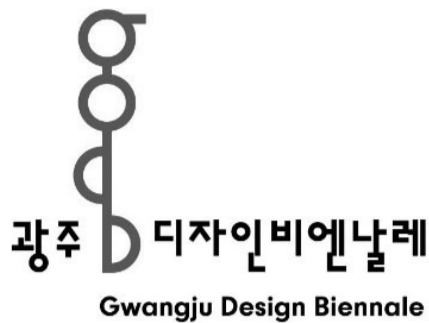


체험으로 즐기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메타버스로 JYP 콘서트 관람
VR로 카카오프렌즈 레이싱 체험 등
디자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다채
9월 7~16일 관람객에 개막 이벤트

메타버스로 JYP 콘서트를 관람하고, 명예홍보 대사 뺑수도 만나고, VR로 카카오프렌즈 레이싱 체험도 즐기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기간(9월 7일~11월 7일) 디자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개막일인 9월 7일부터 16일까지 본전시관 관람객(매일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개막 이벤트가 펼쳐진다. 명예홍보대사인 EBS 인기 크리에이터 뺑수는 9월 16일 전시관을 찾아 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본전시관(3관)에서는 9월 10일부터 멸종 위기 동물을 소재로 한 스티커 클러킹 아트와 대형 페이퍼 토이 등 디자인 체험을 메타버스 플랫폼과 전시관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롯데정보통신과 칼리버스, JYP엔터테인먼트의 '버추얼 콘서트 인 메타버스'는 VR기기를 착용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JYP 콘서트를 관람하는 작품이다.

㈜브론의 '프렌즈 레이싱VR'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VR 레이싱 게임. 6가지 테마를 배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브리즈(주)의 '퍼스널 아이웨어' 작



지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체험을 즐기는 모습.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품에서는 안경 제조 과정을 3D 스캐닝을 통해 체험할 수 있으며 4D 리클라이너 의자를 즐길 수 있는 누하스의 '루나로 떠나는 심의 여행', 자신에게 맞는 한약재를 찾는 선택의 '감각의 걸음'도 체험할 수 있다.

커다란 빵 모양의 빈백(beanbag)들로 구성된 플래지어×썬오브쉐어의 '거대하고 맛있는 빈백', AR 연동 사운드 체험 프로그램인 썬에이투지라운지의 '크로스해킹'도 있다.

'더 리틀 큐레이터'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수료증도 받는 '일석이조'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아트팝업 북을 만드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9월 7일

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된다. '나만의 머그컵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예약제로 비엔날레 전시관 이벤트홀에서 운영된다.

송진희 원장은 "전시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전 세대가 디자인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디자인 전시도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을 주제로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 등 광주 일원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카카오웹툰, 아마추어 플랫폼 단는다

신인 작가 요람 '웹툰리그' 종료...공모전 등으로 대체

카카오웹툰의 아마추어 연재 플랫폼이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30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마추어 작가 자유 연재 공간인 웹툰리그 서비스가 최근 종료됐다.

웹툰리그는 과거 다음웹툰의 투고 코너였던 나도 만화가 게시판을 이어받아 아마추어 작가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네이버웹툰의 도전만화, 베스트도전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아마추어 플랫폼으로 꼽혀왔다. 나도 만화가 게시판을 통해 '다이어터'와 '지옥사원'으로 유명한 캐럴멜 작가, '어쿠

스틱 라이프'를 그린 나다 작가가 발굴됐다.

웹툰리그에서도 '이태원 클래스'의 광진 작가, '어쩌다 발견한 7월'의 무류, '귀퉁이 일기'의 2B작가 등이 빛을 봤다.

카카오엔터는 향후 아마추어 플랫폼 대신 공모전과 산학협력 등을 통해 신진 작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비슷한 서비스 계획이 현재는 없다"며 "향후 상시적인 형태의 리그보다는 공모전 등에 집중해 유수의 작가들과 함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엔데믹에 공공도서관 이용 증가

지난해 전국 1억7500만명 방문...전년보다 26% 늘어



지난해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개관한 신용도서관. <광주일보 자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했던 공공도서관 이용이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1억7500만명,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는 2500만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2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도서관 개관일 수가 연간 290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1관당 이용도 늘어났다.

1관당 방문자 수는 14만2160명으로 전년 대비 23.6% 늘었다. 대출도서 수도 1관당 11만1824권으로 1.0% 증가했다.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1관당 87건 진행됐고,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1관당

2만353명으로 24.1% 늘었다.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도 연간 8억 2900만 건 이상으로 전년보다 17.3% 늘었다. 전자자료 수도 51.9%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시기를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가 성장세를 보였다.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지난해 기준 1236개관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8개관(2.3%)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개관, 경기 309개관, 경남 79개관, 전남 73개관, 경북 71개관, 전북 66개관, 충남 62개관, 강원 61개관, 인천 58개관, 충북 54개관, 부산 51개관, 대구 44개관, 광주 27개관, 대전 25개관, 제주 22개관, 울산 20개관, 세종 15개관이다.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2.38권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연합뉴스

임진왜란~조선시대 승병 활약상 재조명

한국학호남진흥원, 오늘 전남대 용지관서 학술대회

조선시대 승병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전장으로 달려갔다. 특히 호남의 승군들은 육지의 의병들 못지 않게 공적을 세웠다.

승병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전득염)은 임진왜란부터 조선 후기까지 승병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31일(오후 2시) 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홀에서

연다.

'조선 의승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용태 교수(동국대)가 조선 시대 의승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평가됐는지를 정리한 '조선의 의승, 기억과 추송의 담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손성필 교수(조선대)가 '조선 시대 승군 운영과 호남 승군의 활동'을 통해 호남지역

승군의 운영체계를 이야기한다. 김승호 교수(동국대)는 승장 사명당의 설화를 지역별로 배치한 뒤 사명당 설화가 어떻게 부조, 형상, 평가되었는지를 발표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계표 전라남도문화재위원을 좌장으로 양혜원(서울대), 이종수(순천대), 김중진(동국대) 교수가 참여해 의승 연구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전득염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적 관점에서 승병들의 역할과 의미 등을 다채롭게 조명할 예정이다"라며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승병 외에도 호남의 병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해 목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